

한국의 문화적 이상론과 그 문제점들

하 도 록*

目 次	
1	서 론
2	역사적으로 본 제 종교가 문화와 개인에 끼친 영향
3	해를 끼치는 다른 이상론과 그 영향
4	한국 교회와 특징적인 문제들, 특별히 농촌교회
5	보통 주민으로서 기독교인의 개인적, 특징적 문제점들

1 서 론

본 논문은 한국농촌교회 평신도들과 지도자 및 신학생들을 위하여 만든 책 「한국기독교 농촌 문화」(1974)에서 제2부 “한국의 문화적 이상론과 그 문제점”들만을 발췌해서 엮은 것이다. 제1부는 신학적인 기초이론을 논한 것이고 제3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인데 반해, 제2부는 문제점을 찾아서 비판한 부분이므로 제2부만을 본 논문집에 수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기독교문화의 발전을 저해한 한국적 사고의 몇가지 개념들을 분석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실려 있다.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한 글이 아니니 독자께서 양해하기 바라며, 비록 내용이 빈약할지 모르지만 너그러운 태도로서 이해하고 읽어서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A. (선지자)

선지자로서 기독교인은 모든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영접하고 증거하기를 기뻐한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좇아 생각한다”고 C. 반달이 말한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불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¹⁾

1. 참된 문화는 잃은 자와 구원 받은 자에게 자비의 증거와 봉사를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문헌,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수송 등 의학, 농업)
2. 참된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돕는다. (교회, 건축술, 음악, 미술, 자연, 감상)
3. 참된 문화는 구속받은 자의 영광의 일부이며 그의 유산의 일부이다.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 재생되고 분배된 성경, 부요한 가운데 미(美)와 건강—신명기에 있는 약속들)

* 副教授

1) cf. 계 19:10; 22:10

4.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완성한 것은 하늘에서도 가치있는 것 같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²⁾(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문화는 물론 새 땅에서도 계속하는 모든 죄와 부패가 없는 영원한 상태, 본질 및 근본 뜻을 지녔다고 믿었다.)

5. 만약 에덴동산 안의 생활이 문화적 활동이었고 하나님의 낙원이 문화적 장식으로 찬란하게 되어 내려오고(길, 문, 보좌 등), 그리고 거기서 자연이 지배받고 통치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부활체로 문화적 활동을 할 것이다. 그 외에 무엇?³⁾

B. (왕),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림으로 기독교인은 복음의 명분에 합당한 지원을 얻음으로써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인구증가 능력과 천국에 “많은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수단을 위한 힘과 재산을 획득한다.⁴⁾

C. (제사장), 모든 영역에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⁵⁾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봉사.⁶⁾

1. 모든 활동 범위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연민은 교회를 통하여 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직접적인 전도를 지원해 줄 것이다.
2. 기독교인의 헌금은 교회나 기독교적 사회단체를 통하여 세계 널리 공헌의 증거와 봉사를 하게 한다.⁷⁾
3. 상담, 가르침, 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의 에스라를 보라.⁸⁾

D. 삼직간의 관계; 만약 선지자가 연약하고 그의 일을 잘못 행하면 왕과 제사장은 지혜와 진실성이 너무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게 되고 봉사를 아무 힘도 없게 된다.

만약 왕이 약하고 그의 일을 잘못 행하면—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왜냐하면 몇몇 악한 자가 힘을 가진 외에는 모두가 다 가난하고 병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사장이 그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으면—선지자의 증거가 희미해지고 왕의 사역이 위약해지고 줄어들어서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E.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보편적 직분은 신자 누구에게나 있다. 셋 다 동시에 변화의 강도를 가지고 신자에게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F.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선물이 주어진다.⁹⁾

Note; 다음의 모든 분석은 저자의 국가와 민족 및 모든 국가와 민족이 그 나름의 독특한 약

2) 계 14:13

3) 계 21:22

4) 벰전 2:9; 계1:6; 5:10; 20:6

5) 롬 12:1~2

6) 사 61:6, 골3:23, 롬14:8

7) 엡 4:28 딤후 3:14

8) 스7:12, 10. 대하 17:7-10, 느8:7

9) 엡4:7, 8:11-13

습과 폐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 자신이 깊이 인식하고 행한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18성상 동인의 관찰을 한정된 범위에서 나의 제 2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우정으로 기록하고 싶다. 이 땅에는 미덕과 장점이 훨씬 많으나¹⁰⁾ 외국인으로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상적 유산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을 나쁘게 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2 역사적으로 본 제종교가 문화와 개인에 끼친 영향¹¹⁾

A. 사마니즘과 그것이 끼친 해로운 영향.

◎ 속명론.

◎ 윤리에 대한 무시와 자기 책임성의 결여.

보수주의와 정체(停滯), 장래에 대한 무계획, 단지 현재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문화 발전에 질식할 듯한 속명론—현재의 폐락과 여흥의 동반(同伴)목적—재난을 피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삶으로 이끌기 위함(중국의 도교와 비슷한 것이 많다.)

◎ 화해와 희생의 요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하나님과 화해의 교리가 단지 뒤섞인 진리의 외형상의 그루터기를 보여 준다.

B. 유교가 끼친 해로운 영향

◎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실리적인 규범들을 가진 단지 수평적인 윤리체계¹²⁾, 하나님, 죽음, 심판에 관해 무관심

◎ “가정을 기초로 한 이기적인 이상론”을 생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의무를 등한시
“가족 집단에 자기 복종”

친족을 중시한 정실(情實), 정치와 사업 구조에 있어 족벌주의

◎ 해국주의와 함께 보수주의와 전통주의

◎ 국민 위에 존재하며 피통치자보다는 통치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생각

◎ 하인근성과 훈련되지 않고 부적당한 아부배들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해독

10) 단지 몇개의 예를 든다면 기쁨으로 대접하는 사랑이 고도로 발달된 위업, 자비, 예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어른을 존경하고 가족이나 가문 중에 노인들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은 동시에 고도로 쾌활한 정신과 자유와 개인적 표현을 사랑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들을 위한 위대한 사랑과 그들을 교육시켜 인생에 성공하도록 가까이 희생하고자 하는 위대한 마음은 뚜렷하다. 한국인들은 많은 친구를 사귄다. 예술과 학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스포츠와 무술(武術)을 고된 훈련으로 접근함과 어울린다. 세속적이고 다채롭고 로맨틱하고 기운 세고, 신비롭고 회극적이고 비극적이어서 결코 미지근하거나 멍청하지 않다. 국가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었고 민주주의와 제퍼슨, 링컨 같은 서방의 영웅들을 열광적으로 사랑해 왔고, 자유를 위하여 많은 목숨을 바쳤다.

11) 나는 흥 현철 및 그의 몇 분이 편집한 Korea Struggles for Christ,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6 가운데 유동식씨가 쓴 “The Religions of Korea and The Personality of Koreans”에 많이 의존했다.

12) 동양의 윤리는 정제적이며 답습적인 수직적 윤리체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 관계의 규범을 수평적 윤리체계라고 여기서는 밝힌다.

◎ 성격 발달에 명예와 형식이 주요 가치로 생각, 개인의 덕성에 관한 5가지 원리에 대하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예는 유교의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¹³⁾

이상에서 우리는 가정과 국가의 관계와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신적 진리의 메아리를 본다. “하늘”의 개념이 극소화되지는 않았으나 만물의 창조자요 조성자이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로서 인격적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Note: 윤 태립, 한국인 p. p. 126 이하에서:

중용과 무 창조성을 남음; 권위주의, 상대적 윤리 및 관련되지 않으려 하거나 세상에서부터 은둔하여 액운을 도피하려 함.

C. 불교와 그 영향

◎ 자연계에 무관심과 부정

◎ 죄와 악의 근본적 성질을 부정

◎ 여러 종류의 필요한 것에 계속 봉사하고 일하는 삶을 등한히 하는 “예불”과 “선”, 추상적이고 미화적인 것에 과도한 강조

(참된 길, 진리에 대한 추구는 불교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서 추구하지는 않는다.)

3 해를 끼치는 다른 이상론과 그 영향

A. 서구와 다른 곳에서 온 유해한 개념들

개인주의 개인적 과장에 지나친 강조, 세속주의, 물질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팻시즘, 기독교를 바라보는 자들을 혼란케 하는 각종 이단들(많은 예가 더 있으나 이런 것들이 농촌지역에 끼친 영향은 적다.)

B. 정적주의(靜寂主義)는 험산에 의해 고립된 집단들, 한국 농촌을 둘러싼 거대한 국가 권력, 넓은 세상에서 편협하고 고립된 생각에 의해 설명될 것 같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개혁정신의 결핍, 개발과 식민화에 거의 힘쓰지 않음, 반도 국민으로서 바다를 향한 관심이 이상하게도 부족한 것은 정적주의, 질식된 상상력, 통제된 자유, 견고한 계획과 풍부한 자원에 기초한 독창적이고 대담한 기업의 결핍이 그 결과로 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부들조차 육지가 보이는 곳 그 이상은 더 나가지 않았고 “해질녘”까지는 돌아 왔다.

C. 상류사회의 유흥 탐닉과 60세(노령이라 그 나이에 생존자가 적긴 하지만)만 되면 일하지 않고 은퇴하는 풍조들,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일하도록 인간에게 권위와 의무를 주신 성경적 이상론을 가로질러 간다.

13) 남규백, “Nopunta Village” in Ethno-Sociological Reports of three Korean Villages, ed. Dr. John E. Mills, UNC APO 301, 1958. p. 7.

비교: 제 4 계명 “셋새 동안 힘써 배 일 할지니라.”

D. 학문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경향——지배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응용과 유용의 생각이 거의 없이 고전 작품들을 단지 이론적이고 미학적으로만 연구¹⁴⁾, 이것과 관련하여 문어체(文語體) 중국어의 상형문자체제는 결과적으로 대중을 문맹자로 지내게 만들고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것을 완전히 익히는 데 수 년을 낭비하는 피로움을 준다.

그 결과는 뜻나기 학자와 캄캄 무식한 대중들

E. 교육—다른 문제들(공부를 장려하는 것은 큰 유산이긴 하지만)

1. 여자가 높은 수준에서 교육 받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불구자들은 무시되고 멀리 받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교육은 학교에 맡겨지고 가정에서는 등한하다. 부모들은 가정에 필요한 기술조차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 한다. 젊은이들이 일반지식과 기술들에 매우 서툴 때가 많다. 광범한 독서는 아직도 부족하다.¹⁵⁾ 해업, 사격 등을 배우는 자도 소수이다.
3. 농촌에서는 교육에 대한 자기만족이 있어 정식 학교 수업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교육을 멈추는 듯이 보인다. 학교에서 준 숙제가 없다면 가정공부는 적다.
4. 학교 교육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결핍에 기인한 것보다 잘못된 교육이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¹⁶⁾
 - a. 대개의 교수방법은 작업장, 토론, 세미나, 실험, 실습 등의 기회가 적은 강의에 의한 것이다.
 - b. 암기는 중요한 기술로 강조된다. 학생들은 단어를 듣고 노트에 받아 적는 데 애쓰고 대학 수준에서조차 많은 분석이나 평가가 응용없이 시험 칠 때는 마침 녹음테이프가 재생하는 것처럼 노트 그대로 복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c. 교과서들도 이론에 치중하고 문제해결에 경시한다.
 - d. 교과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교과서 일부만으로 학기를 마칠 때도 있다. 이리하여 분명히 전체를 파악하거나 응용하는 것은 교육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 e. 쓰는 과제물은 극소이며 자료들을 모아 주어진 논문을 위해 조직, 분석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
 - f. 교사들은 지속된 개성과 지적 상호교환을 위한 학생과의 접촉이 없다. 미국의 많은 상류학교는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통해 격려를 준다.

14) 이조시대의 과거제도

평민: 현 중앙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진사(進士)까지 급제 후 임용

귀족 및 왕족: 고등고시에 해당하는 과거제도

시험내용: 유학자의 시 문장 정치 도덕에 관한 책

15) 시간의 사용과 독서에 관한 F.1을 비교하라.

16) 동아일보('74.2.7)에 의하면 문교부가 98년도까지 초·중·고교 수업체제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탐구, 적용'으로 개혁한다는 기사가 이 난을 쓰는 동안 발표되었다. 이것은 관심을 끄는 일이다.

g.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나 마지막 단계(대학) 학생들은 공부를 하든 말든 그들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입학 후에는 거의 공부를 안하는 경향이 있다. 추천제도가 중·고등 학교 단계에서 약간의 폐단을 제거하나 우수학생을 격려하지는 못한다.

h. 도서관은 덜 강조되고 장서가 많아도 학생들이 원하는 그 책에 바로 접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F. 시간, 공간과 운동 개념(약간의 관찰 결과들)

1. 시간을 자기의 가장 귀한 소유물로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은 삶의 잠재의식적인 밑바탕으로써 흘러 간다. 식욕, 피로, 육체적 순환은 사람이 계획이 거의 없는 유형들로써 보내는 시간들을 지정한다.(이것은 물론 상대적 비평이며 손목시계는 더욱 성인들이 사용한다.) 약속된 시간은 느슨하게 지키고 전통적 한국인이나 중국인의 사상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에 매우 강하지만 기회나 가치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없이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여러가지 활동을 위하여 시간의 효율적 증대를 이루려는 생각이 거의 없다. 개인의 수면이 타인의 예기치 않는 방해나 잠에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타인이 독단적으로 생각함에 의해 깨어진다. 아침 식사준비에 소요되는 두 시간을 아까와 하지 않는다. 토론의 주제로 어떤 일을 보다 빨리하는 방법이나 생각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능력”개념이 혼하지 않다. 여행자들은 좋은 독서나 뜨겁게 달군 일들로 시간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시간은 지속되는 것이지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하기 보다는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기차 안에서 음주, 도박, 잡담으로 시간을 날린다. “세월을 아끼라.”엡5:16, 골4:5, “사람의 상황은 그의 의무의 표상이다.” Burke.

2. 공간

때때로 외국인의 눈에는 공간은 구조적이기보다 점유적(占有的)이며 계획된 것이기보다 지탱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거리감이 막연하다. 목수나 기술자도 정확한 측정과 적은 공차(公差)에 무관심하다. 집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서투르게 이용되거나 낭비되기도 한다. 천정 위의 공간은 거의 이용 안 되고 있다. 소수의 건물이 땅이나 지하실이나 2층을 갖고 있다. 창문 문등의 편리한 크기와 모양은 어떤 것인지를 거의 생각 않는다. 의견상 눈을 끄는 부유한 가정들조차 조잡하게 설계된 계단, 골방, 현관 등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신비롭게 본다. 상자에 포장된 물건도 흔히 자루 안에 붓거나 다져 넣은 곡식처럼 취급된다. 길거리에서도 서로 부딪친다. 제멋대로 설치된 고정 물건을 위해 길이 있다고 주로 생각하거나 보행자와 차량교통의 순조로운 유동(流動)을 위한 것으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내 인상들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중국인은 공간과 형태에, 일본인은 선(線)에 한국인은 색깔에 의식이 강하다.

이 어령씨는 "...모든 서양문화는 입체적인 경향인 반면에 한국 (동양)문화는 수평적, 평면적이다. 입체는 공간을 포함한다.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지를 안 사람들이 마천루와 항공기를 건설했다. 입체로부터 서양문명의 부피와 무게가 왔다. 우리 한국인은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한다.¹⁷⁾ 이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관련되는지? 하여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용하자. 공간은 기회이다.

비교: 었 4:27 τόπος—"place"— (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3. 위험에 대한 개념

느리고 위엄있는 동작은 산보하는 양반이나 시골 길을 가는 자전거와 덜컹거리는 우마차를 위한 습관인 반면에 택시나 배달하는 소년이나 시골 버스들은 목이 부러져라 하고 질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놀랄만한 대조는 위험스런 돌발적 사고에 늘 무관심한 것을 강조한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야 하겠지만 차량의 능력, 도로의 상태, 기계 고장과 사고의 확률—이런 것들보다 제일 빨리 도착하려는 욕망이 먼저 훨씬 지배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그 차량이 도착한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위의 1을 보라)

시간, 공간 개념에 관련된 위험은 다음에서 드러난다.

다른 차량들이 오고 있지 않는 때조차도 보행자들은 차량들 앞을 건너간다. 보행자들은 때때로 격심한 교통난 가운데 빨간 불도 무시하고 태연하게 어슬렁 어슬렁 걸어간다. 고속도로나 도로의 일차선 안으로 뛰어드는 균형이 거의 잡히지 않은 자전거의 갑작스런 우회전은 흔히 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면 안전한 지점이 몇 미터 건너 있음에도 하전만 위험하든 말든 고장난 그 지점에서 항상 수리한다. 표지판도 없이 앞이 안 보이는 모퉁이에 차량들을 밤에 세워 둔다. 차량들은 가끔 후미등이나 반사경도 없다. 자전거와 수레들은 왜 밤에 항상 반사경이 없는가? 경적은 앞이 안 보이는 모퉁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2차선으로 가야 할 차가 1차선으로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튀어 나오며 이런 모퉁이에 있는 시계(視界)를 방해하는 나무들은 거의 잘라 내지 않는다. 구멍이나 하수구가 수 주일이나 수 개월 경고판이 없이 방치되고 빠른 시간 내에 거의 수선되지 않는다.

건물 내에서 난로나 뚜껑 없는 화로의 불길도 역시 인화물 가까이 있다. 층계들은 손잡이나 난간이 거의 없다. 층계의 층들은 때로 높이가 다양하고 조명이 나쁘다. 모든 면에 편하게 손님을 대하나 층계나 변소는 손님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꼭 걸어가야 되는 쪽에 판자에 박은 못이 삐죽 튀어 나와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재, 홍수, 도둑, 재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일이 터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¹⁸⁾

17) "In The Soil In The Wind", 제19장 p.81 (한국판 p.78)

18) 잠 1:20-23이 관련 있다. 벵전 5:8

G. 청결, 단정, 편리, 안락

1. 청결 개념—어떤 이는 다량의 온수(溫水)를 사용하여 욕실 안에서 때를 살살이 문지른다. 그러나 다음 번 목욕은 수 주일이나 수 개월 후가 될 수도 있다. 집안이나 뜰의 밀폐된 장소에서 소량의 물로 자주 씻고 목욕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소량씩 몸을 몸에 씻는다면 온수 한 들통쯤이면 목욕에 충분하다.

2. 단정과 스타일의 개념—시골 노인에서 도시 소녀에 이르기까지 이발이나 의복에 높은 수준의 단정이 유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의 단정이 때로는 뜰, 문밖, 거리에까지 확장되지 못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유원지, 공원, 교외에서 쓰레기, 깨진 병 등을 버리는 것이 때로는 다른 의미의 습관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이 새마을 운동에서나 예를 들어 새로운 고속도로의 휴게실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3. 편리와 안락의 개념—공교롭게도 먼저 풍습과 형식이 자주 언급된다.

a. 온돌은 손님을 위해 따뜻해야만 한다.—비록 영등이가 뜨거울지라도...

b. 손님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땅에 대야를 놓고 세수하기를 권한다. 그러나 낮은 담 너머로 이웃 사람들의 호기심에 찬 구경거리가 되도록 뜰 안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c. 손님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권한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유쾌한 것이 된다. 물수전은 대개의 경우 준비되어 있지 않다.

d. 다량의 신선한 공기를 음미하며 공급하나 문 앞에 발을 드리우지(치지)않아 끈중이나 먼지가 들어오며 예를 들어 모기를 제거하려는 주된 의미에서 뜰이나 길의 풀을 베어 버림으로 땅이 젖을 때는 더러운 맨 흙탕이 되며 건조할 때는 먼지가 일어난다.

주의: 접대의식은 최상이며 외국 손님을 예로 들어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을 저자는 확신한다. 단지 창의력과 자기 분석의 결핍으로 많은 사소한 불일치점들을 빨리 제거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것은 위생, 위험, 다른 문제들에 역시 적용될 것이다. 만약 묵상만 한다면 생에 대한 자의식적 기독교 철학은 모든 영역에 지혜를 줄 것이다.

4. 예의의 개념(이것은 외국인이 논쟁하기 아주 꺼려하는 것이다.)

예의는 섬세하고 매력 있고 유연하며 인정이 많기를 강조하면서 행하는 사랑과 윤리이다. 그러나 예의는 진정한 교토를 막을 수도 있다. 주인과 손님은 환대와 예의에 진실된 본질, 영육을 위한 사려와 유쾌의 문맥에서 영혼의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하고 말해지는 것을 믿어야 한다. 손님은 무례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 솔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기독교적 교제도 아니고 진정한 예의도 아니다. 예의는 부드럽고 은혜롭고 진리를 돕게 하는 것임을 부정하지 말자.

5. "프라이버시"의 개념—한국에 이에 해당된 단어가 있는가? 면목을 잃지 않고 인기와 평판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는 반면(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특히 여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앞 단추를 잠그는 면목(예의)없는 남성들은 없는가?) 보통 한국사람은 자기를 누가 뵈는지 쳐다

불 때도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개인적이며 사생활의 문제에 관해 질문하며, 화장실에 있는 동안 바라 보는 등등을 한다.

이것은 “심리적 여지”의 문제이다. 아마 그것은 마찰과 긴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위의 1.2.3.4에 이율배반적 되는 어떤 것은 아닌가?

H. 다른 개성과 사회적 유형¹⁹⁾

한국인만이 사람이란 생각; 족벌주의; 서로 충돌될 때 페어플레이 의식의 결핍; 여성의 낮은 위치와 남자보다 간음죄에 더 비난 받는 성도덕의 이중적 표준; 수 년 동안 보복하려고 애쓰는 것; 공적인 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결핍; 타인의 결정에 영향을 속히 주기 위해 뇌물등 돈을 쓰는 것; 지도자가 그 상황을 통제하는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책임이나 가능성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 예식의 중요성; 단지 “내가 당신 말하는 것 들겠소” 하는 의미에도 긍정의 표시인 “예”를 사용,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어떤 문제에서는 아주 관대하고 또 다른 문제에는 매우 잔혹한 태도들, 동물에 등한하고 잔인, 성공의 개념, 지위의 상징으로 소(牛) 소유권, 의학 문제에 있어서 극적인 치료와 급진적 수술에 대한 관심, 제식적 곡(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성경적 기독교와 충돌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서구를 모방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분석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다!

4 한국 교회와 특징적인 문제들, 특별히 농촌교회

A. 유능한 교인들의 결핍

1. 농촌교회는 도시보다 노인, 병자, 맹인, 불구자, 정신박약자의 비율이 더 높다. 물론 교회는 그런자들을 보살펴야 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튼튼한 자는 홍일점으로 눈에 띈다. 왜? 이 문제는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2. 여자들은 예배에 숫자상 남자보다 2~3배 많다. (여성이 기독교인인 배우자를 찾은 것은 매우 심각하고 고민거리이다.)²⁰⁾
3. 출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일 경우가 매우 많다.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사람이 뚜렷하게 부족하다. 이 형류 주교는 1956에 이것을 지적하여 무서운 결과들을 예측했다.

B. 농촌교회의 유능한 지도직에 대한 장애

1. 지도직의 원자재(原資材)가 위의 A에서 보진대 불충분하다.
2. 낮은 교육, 무정(無情), 샤마니즘, 유교, 불교 등의 이상론의 배경은 지도직 자재의 출현

19) 나는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려고 하며 특별히 다음책들을 독자에게 추천한다 “Paul Crane, KOREAN PATTERNS”, Seoul, Hollymn Publishers, 1967. 이 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현암사 1951, 1973.

20) 고후6:14, 비교: 교전 6:16

에 장애가 된다.

3. 최소한 말하더라도 기독교는 한 소수 집단이다. 반대, 퇴짜, 추방과 핍박은 기독교 지도자의 몫일지도 모른다. 농촌의 가족이 주는 압력은 특별히 완고할 수 있다.
4. 경제적 풍습들은 기독교 지도자가 안식일을 지키며 뇌물을 피하며 공평한 추를 주며 돈이나 노동의 정직한 계산을 위한 자질(資質)을 공격하는 조류에 투쟁해야 함을 보여 준다.
5. 농촌에 그대로 남아 교회 설립을 원하는 설교자들은 아주 적다. 그들은 농촌교회를 단지 부유한 도시교회의 디딤돌로만 너무 자주 이용한다. 이 사역을 위한 신적 소명의식은 몹시 요청된다.
6. 교파적인 법규나 시행세칙은 자주 지도직의 성장을 방해한다.
 - a. 약간의 교파(장로교) 헌법세칙은 교회 당회 조직을 위하여 장로 한 명을 허락 받기 위해 세례교인 30명을 요구한다.
 - b. 장로교 목사는 자주 “교회의 왕”으로 선포되고 따라서 감독하는 장로들 보다 위에 존립하며²¹⁾ 성경에서 항상 가르침을 받았던 장로회 제도의 본래의 권위의 완전한 동등성을 이리하여 상실하게 된다.
 - c. 장로와 집사직의 피택은 평신도보다 돈을 더욱 많이 내도록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 d. 예를 들어 집사들이 장로직의 후보자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명예가 유지된다고 생각되는 때만(집사직의 유용성을 생각할 때에) 집사직의 증가는 지도직을 값싼 것이 되게 하고 덜 의미있는 것으로 되게 한다.

이리하여 기능이 없는 직분들이 참 직분에서 봉쇄되거나 그 직분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분배하므로 지도직에 장애를 준다. 반면에 장로들이 없는 농촌교회 집사들은 당회장은 관심이 거의 없고 일 년에 단지 한번 방문하는 목사로서 편지 교환도 역시 거의 없을 때는 결국 그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 직분을 범하는 또 다른 예는 장로나 집사들 중에서 주일학교 성경반이나 청소년반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²²⁾
7. 지도자들의 기동력의 한 장애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장로와 목사가 사용하기를 꺼려하던 것이 느리거나 다행하게도 사라지고 있다. 값싸고 유용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위엄과 안락이 당면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8. 당회장이 미조직 교회에 태만 — 일년에 한번 방문하는 것은 그 적은 양떼를 먹이는데 적당하지 않으며 최근에 목회지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교통수단이 훨씬 개선되어 감으로

21)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려) 헌법 정치면 제3장 제15조 제2항 4, 장로의 직무를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를 도와...’를 ‘목사와 협동하여’로 고치고 제19조 제3항 장로, 집사의 임기에 보면 ‘시무장로는 매 5년마다 1차씩 시무투표를 해야하고’를 ‘...할수 있다...’로 고쳤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22) (C.4를보라), 딤후 1:9, 딤후 5:17, 딤후 2:2

목회자들이 자기가 맡은 교회를 거의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가 될 뿐이다.²³⁾

C. 농촌교회의 개념상의 난점들

1. 교회 건물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통탄스러운 일이다. 구약시대에는 수 백만명의 민족으로 구성된 한 이스라엘 국가에 단지 하나의 성전만 허락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때 허용한 혁신이라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에 의한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 건물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고고학자와 역사가들도 2세기 전에는 아무것도 발견 못한다.

Archer Torrey (대 천덕)는 유교가 예배당이나 사제비를 받는 성직자도 없이 한국인에게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스스로 완공하려는 열망이 생긴 이후로 교회는 거의 성지(聖地)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첫째 의무에서(행1:8) 교회건축은 막대한 자금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2. 장로들의 동등성(따라서 목사와 장로도 동등)과 다수제의 장로교 원리는 가장 많은 부분에서 무시된다. 왜 그런가?²⁴⁾

3. 성례 거행 횟수는 적고 장로교 교회들에서는 놀랄 정도로 등한시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²⁵⁾

4. 지도자의 기능적 개념보다 상징적 개념들은 비활동적 지도자에 기인한다. 그것은 위엄과 여가를 내 세우는 양반의 이상론에 원인을 둔 그 결과인가? 집사나 장로같은 지도자들 중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성가대에 참석하고 봉사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비교: 갈 6:6

5. 예배는 너무 자주 거행되어 마치 하나의 기술이나 지정된 집행자에 의한 공연이나 예배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한 유형으로, 마치 신통의 태도는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면 오르간은 그 소리가 음악적이건 아니건 소리를 내야만 한다. 찬송가는 모든 절을 다 불러야만 하며 짝막한 기도나 설교는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 것일지라도 때때로 저주스런 것으로 느낀다.²⁶⁾

6. 장로와 집사의 영적 자격들은 성경에서 볼 때 같다.²⁷⁾ 이것이 한국교회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7. 노력과 돈과 소비되는 설비는 교육적 고려보다 미학적 고려의 무게가 훨씬 더주어지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면 강단 비품에 새긴 화려한 목판, 오르간, 성가대 의복은 많은 비용이

23) 뱀전 5:2-4 행 20:28

리차드 맥스터 지음, 박형용 역, 참목자 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발행; 목회학에 관한 아주 유익한 17세기 고전적 청교도 작품이다.

24) 비교: 행 15: 27 딤펢전 5:17

25) 고전 11:20, 26. 행 2:42, 46

26) 요 4:24. 고전 14:26 시 33:3

27) 딤펢전 3:1-13. William Hendriksen의 주석을 보라.

를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위해서 주마다 연습하는데 소비되는 시간량은 주일학교 교사를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각 분야에 지출되는 모든 시간과 돈은 실제로 기록하여 교회지도자의 마음속에 교육보다는 미학에 얼마나 많이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교육적인 면에서 강단용 성경이나 칠판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종탑에 관해서는 대개 미학적 지출이다.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꽃들도 마찬가지이다.

D. 한국 농촌교회의 환경적 장애

1. 한국 촌락은 소규모이며 교회까지 교통문제에 고립, 그런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유지하고 건축하고 전일 교역자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지리적 고립은 많은 이유에 기인한다.——산이 많은 농촌에는 쌀 증산을 위해 비옥한 토지와 물 공급이 좋은데 거주하려 하여 좁은 계곡을 따라 촌락이 형성된다. 길은 지형과 곡식이 자라는 물 댐 논과 촌락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꼬불꼬불하다. 자동차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토바이 가진 자도 거의 없고 젊은이들 외에는 그것을 탈 수 있는 자도 없으리라. 이런 시골은 모든 사람을 위해 효율적으로 빨리 수송하는 수단을 안 적이 결코 없었던 것 같다. 상류층은 가마를 타고 다녔고 천민들은 걸거나 수레를 탔다. 말타는 몽고인이나 아시아 평지 인같이 남녀노소를 위해 말을 수송수단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빠르고 가벼운 수레바퀴를 가진 마차는 개발되지 못했다.

버스는 이제 매우 보편화 되었으나 어떤 촌에는 단지 하루에 한 두 번 차가 통과한다. 모든 신자 대개가 걸어서 교회에 가며 공공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자전거조차도 소수의 사람이 교회에 갈 때 사용하며, 도시에는 여자도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농촌은 여전히 매우 드물다. 이런 환경적 관념적 문제의 복잡은 매우 많은 교회가 시작될 때 요구되는 매우 탄탄한 것이다.

3. 특별히 농촌사람의 경제적 빈곤——(봉투 없이) 정기적인 헌금은 대 예배시 현재 개인당 평균 약 10~20원 꼴이다. 특별한 감사헌금과 십일조가 많은 금액으로 바쳐지나 내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교파들에서는 십일조하는 교인이 세계교인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나는 본다. 그러나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라면 논밭을 팔아서라도 매우 큰 액수의 헌금이나 큰 희생을 지불하기도 한다.²⁸⁾ 최근의 정부 활동으로 인하여 이제 종자나 비료등을 구입하기 위해 추수 때가 아직 오래 남았을 때에라도 곡식을 팔게 되므로 과도한 투자에서 농부들이 항상 부채를 짊어지지 않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범위에 약한 기

28) 집에서 가꾼 식품이나 농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헌납하는 것은 설교자의 생계와 가난한자에게 분배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때때로 농부는 자기 수중에 현금은 없지만 여러가지 소모품들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 중에 잉여물도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은 운송하기 쉽고 저장하기 쉽고 가난한자에게 나눠 주거나 설교자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기 쉽다. 계란, 감자, 무우, 콩, 비료는 정기적으로 무우는 성미만큼 곧 잘 저장할 수도 있고 분배할 수도 있다. 우유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같은 상하기 쉬운 것들은 설교자가 빨리 소비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빨리 분배할 수 있다. 돈 이외의 훨씬 더 많은 것으로도 헌납할 수 있고 그때 많은 열심이 생길 줄 저자는 믿는다.

독 신자들을 도우도록 함께 일해야만 할 것이다.

4. 최근의 교회 건물들이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열(熱)처리에서 서투르고 많은 건물이 조명이 빈약하며 화장실 설비는 보통으로 경시된다. 그러나 많은 금액이 종탑이나 비싼 강도상과 설교단에 소비된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설비보다 구경거리가 되는 비싼 강도상을 설치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라기보다 서로 “구경하는” 장소인가? (마치 극장처럼?)

깨끗하게 페인트칠하거나 찬 바람이 들어오는 틈을 막는 데나 최대한의 햇빛과 아름다움을 위해 창문을 닦는 데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큰 안락과 청결에 보탬이 될 것이다.

5. 60년대 후기와 70년대 초기에 도시로 빠져 나가려는 현상은 시골 교회에 어린이, 노인, 병자, 가장 가난한 자들만 남게 한다. 그러나 어떤 토지 소유주는 결국 더 많은 소유물을 벌어들이고 개선된 방법, 더 좋은 길, 더 많은 토지로서 농촌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교회도 이런 난점들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는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5 보통 주민으로서 기독교인의 개인적, 특징적 문제점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위의 항목들에 이미 언급된 문제는 생략한다.)

A. 육체적으로 그는 몸이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지만 어떤 영양부족, 장내(腸內)의 기생충, 정기적인 의학적 예방책의 부족으로 병에 항상 걸릴 위험이 있고 부엌, 화장실과 음료수 공급에서 빈약한 위생시설에 노출되어 고통 당할 수 있다.

B. 심리학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와 동 시대의 어린이”인 것처럼 그도 모든 공포, 근심, 타성 음욕, 책임이나 사랑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며 우리는 죄의 전경(全景)의 범위를 여기와 다음 항목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개인에게 아주 악한 죄들이다. 그러나 이 소책자는 복음의 정기적인 전파에 보충자료로 의도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를 이기며 승리를 보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C. 사회구조와 가족(단지 특징적인 문제들만)

1. 가장(家長)의 권위주의——예를 들어 부모나 남편은 자주 기독교 신자인 아내나 자녀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다.²⁹⁾
2. 친족의 가족 중에 게으른 자의 경제적 장애물——직장을 얻어 유용한 사업을 함에 부족을 피할 수 없게 되든지 기회가 허용될 때에는 친척들에게 기식(寄食)하여 살려는 전통적 경향을 통하여서든지 가족이 제공하는 경제적 완화는 복지국가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그 자체의 폐단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여기서 필요하다.

29) D. 6, 아래를 보라.

3. 전통적 의무의 성격——결혼을 부모들이 성사시키려는 것은 서구의 많은 잘못들에서 강한 보호가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성숙한 기독교 젊은 층들이 그들 개인의 생의 반려자를 목사나 친구나 경건한 친척들의 상담을 통하여 찾으려 하고 발견하려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지금은 국가가 규제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전에 이것을 견제하지 못했다.) 세상 떠난 선조들을 위한 성묘와 추도에배, 일터에서 일찍 은퇴하는 것 등은 성경적 관점에서 전철하게 연구되고 다뤄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위하여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은 존중하고 나쁜 것은 바뀌어야 한다.

4. 휴식을 위한 설비, 스포츠, 취미, 미적 관심의 결여, 여기서 결여란 농촌의 문 밖에 둘러싸인 변화와 아름다움과 공리적인 수공업자나 연장을 만드는 자의 다양성에서 보여지는 상당한 기술과 관심에 의해 다소 상쇄된다. 그러나 농장 설비나 연장에서 미적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어린이의 손재주나 비전을 주는 취미는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너무 적고 특별히 지식이나 손재주를 가르쳐 주는 교육적인 것이 적다. 시골 어린이들 가운데 운동경기나 다른 기술을 개발시키고 좋은 경쟁의식을 북돋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국 어린이들은 서구인들의 눈에는 자질(資質)이 풍부하고 씩씩하며 유쾌한 어린이들로 뚜렷하게 비친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고 여러 운동들에 뛰어나기 까지 배우는 자는 적다. 그것은 도시에서 훨씬 더 쉽다.

5. 독서의 무관심은 학문에 대한 관심에 평행하다. 얼마나 이상한 모순인가? 농부, 지방 기술자조차 그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넓히는 책들을 읽지 않으며 그런 정기 간행물은 실제로 아주 적다. 무료 지방 도서관은 서구에서는 아주 흔하나 큰 도시들 외에는 실제로 들어 보지 못했다.

D. 학습에 대한 특징적인 영적 영향들

(I. D. 2. 3에서 언급한 대로 농촌은 도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잇점을 가지고 있다.——도시는 성경에서 음욕, 부패, 탐욕, 독재의 대명사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농촌지역에서도 역시 발견되는 종교적, 광범적 위험을 다룰려고 한다.)

1. 미신(저자는 “도깨비”의 존재를 여전히 믿고 있는 노련한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 보았다.) 지방적으로 신성시 된 고목, 무당 개업자, 점장이 등은 성경이 귀신들과 마귀에 관해 경고 하는 데서 아주 별도인 초자연적 많은 사실들에서 두려움을 남겨 놓아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들이 사탄의 실제적 방법임을 믿게 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공포는 계속되며 우리는 기독교 자유와 공포에서의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2. 외부적 형식과 예식의 요구들은 적대감 있는 불행한 태도를 자주 두둔하여 위선으로 보인다.
3. 나태, 무관심, 무주의, 공동정신의 결여

4. 당파심, 지역주의, 나쁜 경쟁—한국 교회들에는 매우 큰 악들이며 그 근원은 개인들에게 있다.
5. 행위를 통하여서나 타인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이나 상을 얻으려는 생각,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서구에서 메아리치는 사회적 개념들—만약 당신이 직업을 얻어 어떤 일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당신이 알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이다.”와 같은 그런 개념들에 연결된다. 뇌물, 돈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 이차적인 줄을 통해 일하는 것, 어떤 친구의 추천을 신뢰하는 것—이런 유형은 역시 어떤 사람의 신학을 비뚤어지게 하지 않는지? 큰 위험이다!
6. 동료사랑의 결핍

이웃 사랑은 옛 종교적 이상론들의 일부분이 아니며 아직도 이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의무와 특성이다. 유교적 이상론은 강한 가족적 결속을 요구하며 그 확장으로 국가에 충성을 요구하나 사랑은 아니며 특별히 이웃 사랑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7. 항상있는 경제적 문제점들—

빛, 박토(薄土), 기회의 결핍이 뚜렷한 것 등은 사람들이 시기, 탐욕, 불만, 절도나 다른 범죄를 하도록 유혹한다.

Note: 자녀의 공순(恭順)에 관하여—

성공회 목사인 Archer Torrey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녀의 공순(효도)’은 이상적이다. 성경은 ‘존경’을 가르친다. ‘효’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것은 예배다. 한국에서 실행되는 것은 창 2:24에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그 교훈은 복음서들과 에베소서에서 모두 보강되고 보증되었다.)에 반대하여 사방으로 퍼지고 있다. (전통적 한국의)

가족제도는 인격, 개별성, 책임성을 파괴하며 잔인, 시기, 억압, 감정, 열등감, 아첨 등을 조장한다.

2세기 동안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면하는 용기가 결여되어 왔다. 교회는 첫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좃겨나 창 2:24을 실행했을 때는 강건했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집에 머무르며 항복할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

일반 은총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

—미국 기독교 개혁과 교회가 채택한 3개 교리 조문을 중심으로—

홍 반 식*

.....<目 次>.....	
1 일반은총 도리(道理)의 역사적 배경	5 복음의 일반적 전파
2 개혁주의에서 보는 일반은총	6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제어하심
3 Christian Reformed Church 3개 조문과 Hoeksema 목사	7 未重生者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선행
4 우주적 일반은총	

일반은총(Common Grace)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식화된 단어와 같이 느껴진다. 일반은총이란 말의 어감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일반은총이란 말은 즉각적으로 특수은총(Special Grace, 혹은 Saving Grace)이라는 말과 관련을 갖게 한다.

특수은총 혹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함이고, 일반은총은 인간이 이 세상 생활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지는 못하지만,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문화적인 생활을 개발하고 조성하여 다른 동물보다 차원이 다른 생활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으로 부터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 일반은총 도리(道理)의 역사적 배경

일반은총 사상이 학적으로 표현되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Herman Bavinck¹⁾와 특히 Abraham Kuyper²⁾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 교리를 체계있게 학적으로 논증한 선구자적 인물은 John Calvin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H. Kuyper 박사는 미국 Calvin 신학교 조직신학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이론신학자인데 화란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작한 것이 Calvin on Common Grace이다³⁾. Kuyper 박사는 이

* 哲博·學長

1) De Algemeene. 1894

2) De Gemeene Gratie, 3Vols, 1902

3) Herman Kuyper, Calvin on Common Grace, 1928